마이너스 몸,들

– '미래과거'를 쓰는 성스러운 그림글

김종길 미술평론가

English translation by Jein Han. See page 8.

이피 작업실.[1] 그곳에는 이미 멸망한 몸이, 아직 태어나지 않은 몸이, 동물 꼴을 입은 몸이, 아는 듯 낯선 몸이, 상처 입은 몸이 한꺼번에 들끓고 있었다. 작업실로 들어선 몸이 전율했다. 성스러움은 몸부터 떨게 한다. 내 몸이 진저리 쳤다. 저절로 부르르 떨었다.

왜 먼저 몸이 떨었을까? 들끓고 있는 **'몸,들'** 과 마주한 '몸'이 두려워하면서도 이끌린 것일까?

루돌프 오토가 누미노제(Numinose)라[2] 부른 '성스러움'은 두 감각이 맞붙는 자리에서 솟는다. 이피가 낳은 **'몸,들'** 과 내 '몸'은 작업실에서 맞붙었다. 서로 마주했다. 얄팍한 이성 따위가 아니었다. 그의 작품들은 두렵고 황홀했다. 두려운 경외감이었고, 매혹 가득한 황홀이었다.

이피는 숨은 거미다.[3] 거미줄을 내서 제 신화를 짓고 있다. 낳고 있다. 그가 내고 낳고 지은 그물코 천 개는 거룩한 시간이 솟는 샘이다. 어제–오늘–내일로 흐르는 시간이 아니다. 처음 있었던 사건이 지금 여기로 돌아와 다시 일어나는 때다. **처음과 지금이 포개진다.** 처음은 날마다 되돌아와 '지금'에 차곡차곡 쌓인다. 나선형 꼴로 빙빙 돌면서 한꼴로 솟아오른다.

이피 작품 앞에 서면 그래서 시간이 '몸'을 휘감는다. 휘감아 올리면서 내려온다. 오르내린다. 신인지 괴물인지, 사람인지 짐승인지, 내장인지 꽃인지 모를 **'몸,들'** 이 빽빽하게 솟는다. 곧장 곤두박질한다. 성스럽고 불온하다. 아름답고 징그럽다. 탄생이 곧 죽음으로 뒤집힌다. 종교가 되기 전의 신(神)도 이런 얼굴이었으리라. 이름을 얻지 못한 신. 사람과 동물과 죽은 자와 태어날 자가 아직 갈라지지 않은 신. 그 신의 얼굴들.

'이피세'는 이피가 저 스스로 낸 미술시대다. 지질시대가 아니고 미학이다. 그 시대는 종교/미술이 갈라지지 않은 때일까? 작업실에서 '이피'라는 종교를 보았다. 그는

---

1) 작업실에서 대화를 나누다가 기절할 뻔했다. 그곳은 20년 전 방문해서 인터뷰한 굿 사진가 김수남의 작업실이었다. 20년 만에 똑같은 자리에서 이피를 인터뷰했다. 그 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었다.

2) 철학자, 신학자인 루돌프 오토(Rudolf Otto, 1869~1937)가 생각해 낸 '누미노제(Numinose, 신성함)'는 그리스어 '누멘(Numen, 신격/신령)'에서 따온 것이다. 인간이 신성하거나 거룩한 대상을 마주했을 때 느끼는 비이성적이고 심오한 정동 체험을 말한다. 이는 말로나 이성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감정이다. 그는 인간이 신성한 존재(누미노제)를 경험할 때 두 가지 상반된 감정을 동시에 느낀다고 보았다. 첫째는 미스테리움 트레멘둠(Mysterium Tremendum)이다. 압도적인 힘과 무한함 앞에서 인간이 느끼는 두려운 경외감이다. 둘째는 미스테리움 파시난스(Mysterium Fascinans)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비로운 존재에 강렬하게 끌리고 매료되는 매혹과 황홀경이다.

3) 웬디 도니거(Wendy Doniger)는 '암시된 거미'라고 했다.

종교를 그리지 않는다. 종교가 아직 이름을 얻기 전, **성스러움이 몸에 덮치는** 첫 순간을 그린다. 그 성스러움이 그의 미학이요 종교일 터이다.
그런데 이번 전시에서 이 성스러움은 전쟁과 맞붙는다. 전시 제목은 《마이너스 3과 2분의 1차 세계대전》이다. 이상한 제목이다. 세계대전에는 1차와 2차가 있었고, 3차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런데 이피는 3차도 아니고 '마이너스 3과 2분의 1차'를 말한다. 아직 없는 전쟁보다도 더 이상한 전쟁이다.
이피는 전쟁에도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다고 말한다. 직접 총을 쏘고 영토를 빼앗는 전쟁이 있다면, 그 전쟁에 휩쓸려 집과 가족을 잃고 몸을 다치고 죽임을 당하면서도 전쟁 주체로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의 전쟁이 있다. 그들의 전쟁은 역사책 전선 바깥에 있다. 전쟁을 시작하지 않았으나 전쟁을 치러야 하고,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으나 폭력의 까닭을 뒤집어쓴 사람들. 이피는 그들의 전쟁을 '마이너스 전쟁'이라고 부른다.
마이너스는 뒤로 밀려난 수다. 영보다 아래로 가라앉은 수다.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수도 아니다. 플러스가 커질수록 오히려 더 내려앉는 음수다. 바닥 없는 자리다. 이피 마이너스는 역사에서 빠진 몸이다. 이름없는 피해자다. 국가와 군대와 이념이 앞줄에서 세계사를 쓸 때 그 뒤로 밀려난 몸, 전쟁 명분이 커질수록 더 작아지는 몸, 죽고 난 뒤에도 왜 죽었는지 스스로 말할 수 없는 몸이다. 그 몸들이 이번 전시장에 나온다. 민중신학자 안병무는 그들을 오클로스(ochlos, ὄχλος)라고 했다.[4]

헵타포드 글꼴은 둥글게 터진다.[5] 둥근 글이다. 어디가 처음이고 어디가 끝인지 알 수 없다. 끄트머리가 한꼴이다. **끄트머리다!** 끝없는 '몸글'이다. 한 글꼴 속에 말 한 덩어리가 한꺼번에 펼쳐진다. 둥근 글은 비선형 시간을 드러낸다.[6] 말소리 순서 없이 뜻을 한꺼번에 나타낸다. 문장을 써가는 게 아니라, 전체를 미리 알고 한몸으로 펼친다.
이피 그림도 비슷하게 읽힌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을 수 없다. 앞에서 뒤로 사건을 쫓을 수도 없다. 몸 하나를 보았는데 그 안에 또 몸이 있고, 몸속 몸에 눈·가시·내장·식물·비늘 같은 것들이 달라붙었다. 하나가 여럿이고 여럿이 하나다.
그는 실제로 〈촛불을 든 백만 개의 손을 위한 만다라 프로젝트〉라는 이름도 썼다. 만다라가 중심과 둘레를 짜서 성스러운 우주를 한자리에 펼쳐 보이는 그림이라면, 이피 만다라는 중심마저 증식한다. 몸 한 귀퉁이가 또 다른 우주 중심이 된다.

---

4) 성서에서 '오클로스'는 소외된 무리다. 사회적 특권을 가진 예루살렘 시민(라오스)과 달리, 정치적·사회적 권리가 없는 익명의 가난한 사람들이다. 또한 그들은 소속이 없는 자들이다. 기성 질서나 법적 보호 체계 바깥으로 밀려난 이들이다. 복음서는 그들이 병자, 죄인, 세리, 창녀 등이라고 말했다. 예수가 가는 곳마다 늘 오클로스가 있었다. 예수는 그들과 함께 밥을 먹으며 그들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었다.
5) 드니 빌뇌브 감독의 영화 《컨택트》(원제: Arrival, 2016)에 나오는 외계 생명체 '헵타포드'가 쓰는 글꼴을 말한다.
6) 영화 《컨택트》는 여주인공이 딸 '한나'를 잃은 슬픈 기억들을 보여준다. 이것은 회상이 아니다. 아직 겪지 않은 '미래'를 현재 시점에서 미리 보는 것이다. 여주인공은 헵타포드의 원형 글꼴을 배우면서 과거-현재-미래가 동시에 존재하는 비선형적 사고를 하게 된다.

세포 한 점도 중심이고 내장도 중심이며 낯선 생물 한 마리도 중심이다.
이피 그림은 온통 **'몸,글'** 이다. 그것은 닮음으로 알아보는 '아이콘'이면서 손노동과 물질 자취가 박힌 '인덱스'이고, 불화·제단·여신·괴물 같은 기억을 불러들이는 '심벌'이기도 하다. 셋(아이콘-인덱스-심벌)은 따로 서지 않고 범벅으로 움직인다. 이 그림글은 뜻을 설명하지 않는다. 오히려 뜻이 나타나 뵈게 한다. 나타나 뵈니 읽게 될 터이다! 그렇다고 읽는 동안 문장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

온몸에 문장이 덮친다!

그런데 《마이너스 3과 2분의 1차 세계대전》에서는 바로 이 '글'이 뒤집힌다. 이피는 폭력이 폭력을 가리고 덮는 언어들을 전시장 현수막에 썼다. 그러나 이 글은 우리가 아는 글꼴이 아니다. 그가 창제한 글자다. 언뜻 글처럼 보이지만 곧장 읽히지 않는다. 읽는다고 해도 뜻이 선뜻 풀리지 않는다. 그리고 이 현수막들이 분홍빛으로 떨고 있는 **'몸,들'** 을 다시 가린다.
여기서 글은 두 얼굴을 갖는다. 몸을 드러내는 글이 있고 몸을 가리는 글이 있다. 계시하는 글이 있고 은폐하는 글이 있다. 몸글이 있고 가림글이 있다.
이피 글꼴은 그래서 헵타포드 글꼴과 닮았으면서 정반대다. 하나는 시간을 한꺼번에 열어 보이지만, 다른 하나는 폭력의 진실을 알아볼 수 없게 만든다. 그런데 정말 다른 것일까? '알아볼 수 없다'는 바로 그 사실이 우리가 사는 세계의 언어를 더 정확하게 보여주는 건 아닐까?
전쟁은 늘 말부터 만든다. 죽인 뒤 까닭을 만들고, 빼앗은 뒤 명분을 만들며, 희생자를 향해 네가 먼저 시작했다고 말한다. 말은 사실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덮는 천막이 된다. 이피 현수막은 바로 그 천막이다. 몸 앞에 펼쳐져 있으면서 몸을 감춘다.
그러니 이번 전시에서 우리는 작품을 '보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보지 못하게 된 **'목격자'** 다. 〈보고 싶지 않으나 보게 될〉 이라는 제목은 그래서 예언처럼 들린다. 보고 싶지 않은 것을 기어이 보게 되는 미래. 아직 오지 않았으나 이미 알고 있는 미래. 이피가 상상한 제3차 세계대전은 바로 그런 시간 속에서 도착한다.

생각한 뒤에 그린다? 이피는 거꾸로 돌린다. 그는 아침마다 드로잉을 길어 올린다. 생각을 옮기는 것일까? 아니다! 그는 이름 붙기 전, 꼴이 먼저 솟게 둔다. 아직 '무엇'이라고 굳지 않은 꼴, 의식이 붙잡을 때 꿈틀대는 꼴이다. 생각이 꼴을 낳는 게 아니라, 꼴이 생각을 끌고 가도록 내버려둔다. 꼴이 먼저 나고 생각은 뒤에서 꼴을 쫓는다. 시간보다 먼저 오는 '몸꼴'이다. 꼴들은 붙박여 있지 않다. **그들 스스로 자유다.** 그러므로 이피 그림은 '자유'라는 상징으로 활활 거린다.
칼 구스타프 융에게 만다라는 혼란에 빠진 마음에서 저절로 솟는 둥근 꼴이었다.[7] 그것은 흩어진 마음을 묶고 의식과 무의식 사이에서 새로운 중심을 찾게 한다. 그

7) 융은 삶의 큰 위기와 혼란을 겪던 시기에 매일 아침 자신의 마음 상태를 반영한 둥근 그림을 그렸다. 그는 나중에 이것이 인도 종교에서 말하는 우주적 상징인 만다라(Mandala)와 같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기록이 『칼 융 레드 북』이다. 융이 무의식과 직접 대면하며 기록한 영혼의 일기장이다.

러나 이피 만다라는 반듯한 중심으로 혼돈을 잠재우지 않는다. 오히려 혼돈 속에 숨어 있던 질서를 풀어놓는다. 카오스를 없애서 코스모스로 만들지 않고, 카오스가 본디 품고 있던 코스모스를 드러내도록 한다. 그러니 그의 온갖 꼴들은 아직 사람이 읽지 못한 산알 문법에 가깝다.[8]

헵타포드 글꼴을 터득한 루이스에게[9] **미래는 이상하게도 '기억'처럼 온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미 겪은 일처럼 떠오른다. 이피도 작품 시간을 자신이 태어나기 전과 죽고 난 뒤 먼 미래까지 옮기고 싶다고 썼다. 그에게 몸은 지금 여기 한순간에 붙박인 살덩이가 아니라, 먼 과거와 먼 미래가 여러 층으로 포개지는 자리다.

그러니 그의 시간은 '미래과거'가 아닐까! 아직 오지 않았으나 이미 몸속에 묻혀 있는 시간이요, 이미 사라졌으나 앞으로 다시 태어날 시간이다. '태어나기 전날의 축제'라는 말은 그래서 예사롭지 않다. 태어나기도 전에 축제가 벌어진다. 죽은 뒤 미래까지 몸이 뻗는다. 이피 그림에는 현재형이 없다. 아니, 과거·현재·미래가 모두 '현재'라고 해야 옳다. 이피세는 시간이 흐르는 세계가 아니고 시간이 한몸으로 삶을 얻는 세계다.

그렇다면 《마이너스 3과 2분의 1차 세계대전》은 언제 일어나는가? 아직 아니다. 그러나 이미다. 3차 세계대전이 오기 전인데, 그보다 반 걸음 더 나아간 '3과 2분의 1'이 먼저 도착한다. 논리로는 맞지 않다. 그래서 더 정확하다. 이피 시간에서는 오지 않은 미래가 먼저 현재로 침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2분의 1'은 온전한 전쟁과 평화 사이에 벌어진 틈처럼 보인다. 전쟁이라고 선포하지 않았으나 사람들이 죽고, 평화라고 말하면서 폭력이 계속되는 시간. 누구도 원하지 않았지만 누군가는 반드시 치러야 하는 전쟁. 이름 없는 전쟁이다. 이피의 '미래과거'는 여기서 갑자기 정치적 시간이 된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전쟁을 이미 기억하는 몸!

이피에게 '껍질'은 오래된 화두다. 그의 작품들은 껍질을 뒤집는 몸이잖은가! 미국 유학 때 겪은 인종 차별과 언어 장벽은 자기 몸을 싸고 있는 피부를 낯설게 보게 했다. 왜 나는 몸 하나만 가져야 하는가? 왜 이 껍질 하나로 나를 설명해야 하는가? 이후, 그는 껍질을 벗기고 바꾸고 뒤집으면서 다른 몸을 상상해 왔다.

작품에서도 **'한 몸 안에 숱한 몸이 산다'**는 생각이 거듭 나타난다. 그에게 몸은 사건, 사람, 관계, 사회가 새겨지는 장소이며, 멸망한 몸과 미래 몸까지 기생하는 터다.

여기에는 '겉나'와 '속나'가 있다. 겉껍질을 벗기면 안쪽 깊은 곳에 순수한 '나'가 있

---

8) '산알'은 김봉한 박사가 주장한 독창적인 경락 이론이다. 그는 세포 이전에 '산알'이라는 약 1마이크로미터(㎛) 크기의 아주 작은 과립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봉한학설'이라고 한다. 봉한관 안을 흐르는 산알에는 다량의 DNA가 들어있는데, 이 산알이 자라서 하나의 완벽한 세포가 되고, 늙은 세포는 다시 쪼개져 산알로 돌아간다는 가설이다. 산알은 살아 있는 알이라는 뜻이다.

9) 영화 《컨택트》의 여주인공 루이스 뱅크스(Dr. Louise Banks) 박사를 말한다. 영화 속에서 루이스는 인류 운명을 바꾼 천재 언어학자이자, 비극적 운명을 기꺼이 껴안은 아내이자 엄마로 등장한다. 배우 에이미 아담스가 섬세하고 깊이 있는 연기로 캐릭터를 소화해 냈다.

다는 식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러면 이피 **'몸,들'** 을 놓친다. 그의 속나는 알맹이가 여럿이다. 안으로 갈수록 더 많아진다. 여자가 있고 아이가 있고 죽은 할머니가 있고 멸종 생물이 있고 미래 생물이 있으며 사람 아닌 것들까지 웅성거린다. 그에게 '속나'는 그믐날의 월인천강(月印千江)이다. 영동천심월(影動天心月)이다. 수많은 **그늘** 중생이다.

〈내 몸의 전세계 2.0〉 라는 제목도 의미심장하다. 세계가 몸 밖에 있지 않고 몸 안에 있다는 말처럼 들린다. 그렇다면 세계대전도 몸 밖에서만 벌어질 수 없다. 내 몸에 세계가 있다면 세계전쟁 또한 내 몸을 통과한다. 피부와 장기와 감각과 기억이 곧 전선이다.

이피는 홀로 완성된 '몸'을 바라지 않는다. 몸은 세계 안에 박혀 있고 다른 생명·환경·기술과 맺은 관계 속에서 계속 달라진다. 이피 여성성은 누군가 씌운 껍질에 금을 내고 다른 몸으로 갈아입는 힘이다. 그는 《피미니즘 프노시즘(Fiminism Fnositicism)》 에서[10] 여성들만 모이는 의례-제단, 하늘-땅, 삶-죽음 사이를 오가는 천사 또한 그런 '사이-몸'을 드러냈다.

껍질은 나를 가두지만 바로 그 껍질을 뒤집는 순간 다른 **'나,들'** 이 태어난다. 이피 여성학은 한 여자를 해방하는 데 머물지 않고 몸이라는 감옥부터 부순다. 그런데 이번 전시에서 '죽은 할머니'가 그 속나 깊숙한 곳으로부터 다시 올라온다. 〈출토된 할머니의 다정한 영혼과 순장된 새들에 대하여〉 를 보라. '출토'라니! 죽은 이를 '기억한다'고 하지 않고 속에서 '파낸다'고 한다. 기억은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라 묻혀 있는 것일까? 먼 미래의 누군가가 지금 우리 문명을 발굴하듯, 이피는 제 몸 깊은 곳에 묻힌 할머니를 발굴한다!

외할머니를 떠나보낸 뒤 그는 소리에 몹시 예민해졌다. 사방의 소리가 편집되지 않은 채 몸으로 밀려들었다. 그는 그 소리를 막지 않고 색채와 공간으로 받아썼다. 할머니가 없다는 사실에 주파수를 맞추자, 부재가 오히려 더 큰 감각의 통로가 되었다. 놀라운 것은 그때 죽음의 빛깔이다. 죽음이 검어지지 않는다. 알록달록해진다. 명랑해진다. 할머니 반짇고리처럼 여러 빛깔을 품는다. 죽은 할머니는 사라진 대상이 아니라 더 광대한 '매체'가 된다.

그 매체를 지나면서 소리가 색으로 번지고, 기억이 공간이 되고, 부재가 몸을 다시 움직인다. 이것을 이피는 '몸적 소통'이라고 부른다. 나는 이 말이 이번 전시를 여는 또 하나의 열쇠라고 생각한다. 전쟁은 죽은 사람을 숫자로 만든다. 몇 명이 죽었고 몇 명이 다쳤다는 통계로 바꾼다. 정치 언어는 그 죽음에 명분을 붙이고, 미디어는 새 죽음으로 지난 죽음을 밀어낸다. 그러나 할머니 죽음은 숫자가 될 수 없다. 한 사람의 냄새와 소리와 손길과 반짇고리가 남는다.

---

10) 이피가 2018년에 개인전 제목으로 제안한 'Fiminism Fnositicism'라는 조어는 세 요소를 결합해 작가가 직접 만든 상징어다. 'Fi'는 작가 본인의 이름(Lee Fi Jae)에서 가져왔다. 'Fi'를 Feminism에 붙였다. 이것은 페미니즘이 추구하는 여성 신체와 존재성, 사회적 억압에 대한 탐구를 '이피' 자신으로 돌리는 개념이다. 또한 'Fi'를 Gnosticism에 붙여서 바꾸었는데, 이 또한 그노시즘이 추구한 '물질을 초월해 내면 직관과 신비로운 비밀 지식을 통해 구원에 이르려는 종교·철학 사상'을 자기에게 돌린 것이다.

한 사람의 죽음은 한 세계의 죽음이다. 그리고 그 한 세계가 다시 색으로 살아난다. 이피의 '마이너스'가 새로운 까닭도 여기에 있다. 마이너스 몸은 역사에서 빠져나간 몸이지만, 그렇다고 없어지는 몸이 아니다. 죽은 뒤에도 냄새로 돌아오고, 색으로 돌아오고, 소리로 돌아오며, 누군가의 몸을 통과해 다시 현전한다.
'순장된 새들'도 할머니 곁에서 그렇게 죽음의 군락을 만든다. 사람의 죽음과 **사람** 아닌 생명의 죽음이 한자리에 놓인다. 이피에게 죽음의 위계는 허물어진다. **인간**의 장례와 새의 죽음, 기억과 매장, 제의와 미술이 뒤섞인다. 그래서 나는 '다정한'이라는 낱말을 오래 바라보게 된다. 마이너스 전쟁의 반대말은 플러스 전쟁이 아닐 것이다. 어쩌면 **'다정함'** 일지 모른다.
금분, 불화 안료와 붓질, 강화 플라스틱, 합성 점토, 천, 말린 오징어. 이피 손에 들어온 재료들이다. 그는 재료를 타고 미래과거를 건넌다. 오래된 절집 빛깔과 석유화학 문명의 물질이 맞붙고, 한때 바다에서 헤엄치던 생물이 말라붙은 채 제단으로 올라간다. 〈승천하는 것은 냄새가 난다〉에서 오징어는 낯선 몸을 바라보는 시선, 죽음과 부패, 기억과 냄새가 한 덩어리로 엉겨 붙었다.
미래예술은 미래를 감각하는 몸이 '지금'을 발명하는 일이리라. 이피는 재료로 바로 그 일을 한다. 금분은 먼 제의(祭儀) 시간을 끌어오고, 플라스틱은 산업문명 뒤쪽의 미래를 내민다. 말린 생물의 몸은 죽음을 품고 냄새로 현재에 침입한다. 재료마다 시간이 다르다. 그러니 이피에게 재료가 곧 시제다. 감각하는 몸이다. **지금 여기를 사는 몸이다.**
이 시제들이 한 작품에 들러붙을 때 괴물이 태어난다. 괴물은 아직 분류되지 않은 생명체다. 사람/짐승, 여자/남자, 산 것/죽은 것, 과거/미래를 갈라놓던 칸이 무너질 때 나타나는 새 꼴이다. 그래서 이피 괴물은 두렵고 아름답다. 오토가 말한 '성스러움'처럼 떨게 하면서 끌어당긴다.
이제 우리는 하나를 더 보아야 한다. 이피의 괴물은 생물학 경계를 넘는 몸이면서 전쟁의 경계를 넘는 몸이기도 하다.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살아 있는지 죽었는지, 먹는 것인지 먹히는 것인지, 제물인지 신인지는 알 수 없다. 〈에로티시즘은 샤오룽바오에게〉, 〈국수 구토 구멍〉, 〈눈물침대와 쌀밥침대는 눅눅해〉, 〈우리의 식사는 타버릴 식사야〉, 〈Wall Wall Wall〉을 도대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먹고, 토하고, 눕고, 타고, 막힌다. 식탁은 침대가 되고 침대는 제단이 되며 음식은 몸처럼 보인다. 작가노트에서 이피는 회화 속 희생자들을 '식탁의 음식물처럼 진설된 희생의 제물'이라고 했다. 이 말은 끔찍하다. 먹는 몸과 먹히는 몸이 뒤집힌다. 전쟁은 사람을 제물로 바꾸고, 죽은 몸을 다시 명분의 식탁 위에 차린다.
성스러움 밑바닥에는 어쩌면 오래전부터 제물이 있었는지도 모른다. 신의 이름이 정해지고 성전 건축법이 생기기 전, 사람은 그런 혼종 앞에서 먼저 무릎을 꿇었을 것이다. 두렵고 황홀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누군가 제물이 되는 순간 그 황홀은 피를 가진다. 그러므로 이번 전시에서 이피의 누미노제는 무구하지 않다. 두렵고 황홀

하면서 동시에 잔혹하다. 몸과 시간이 서로 뒤섞여 새 종을 낳는 때, 이것이 이피세다.

나는 그 이피세에 한 문장을 더한다. 이피세는 폭력이 언어로 몸을 가리는 시대다. 죽은 자가 색과 소리와 냄새로 돌아오는 시대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절멸이 이미 기억처럼 몸속에 들어와 있는 시대다. 《마이너스 3과 2분의 1차 세계대전》은 그래서 미래 전쟁을 그린 전시가 아닐 터이다. 우리가 아직 전쟁이라고 부르지 않는 전쟁을 보여주는 전시이리라.
이미 시작되었으나 시작되지 않았다고 말하는 전쟁. 아무도 원하지 않았으나 누군가는 반드시 치러야 하는 전쟁. 희생자가 가해의 이유까지 떠안아야 하는 전쟁. 죽은 사람의 입을 다른 사람의 말이 대신 막아버리는 전쟁. 그것이 마이너스 전쟁이다.
그리고 그 전쟁을 이피는 몸으로 썼다. 그의 그림은 아직 오지 않은 시대에서 거꾸로 날아온 비문이다. 말이 태어나기 전에 쓰인 미래 경전이다. 이제 그 비문에는 죽은 자들의 몸이 박혀 있다. 눈으로 읽는 글이 아니라 몸으로 읽는 만다라이고, 읽으려 하면 현수막이 다시 앞을 가린다.
그래도 몸은 완전히 가려지지 않는다. 가린 천 아래에서 분홍빛 살이 떨고, 죽은 할머니가 색으로 돌아오며, 순장된 새들이 곁에 눕고, 말린 생물은 냄새를 내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몸들이 미래에서 거꾸로 기어온다.
말이 폭력을 덮어도 몸은 끝내 말한다. 나는 그것이 이피가 세운 '마이너스 몸'이라고 생각한다. 태어나기 전날부터 죽은 뒤까지 이어지는 몸. 전쟁 이전부터 전쟁 이후까지 살아남는 몸. 가려도 사라지지 않는 몸. 바로 그 **'몸,들'**에서 이피의 성스러운 그림글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